

하용조 목사의 짧은 묵상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다면

저는 초등학교 때 다음과 같은 에녹에 대한 동화 한 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해가 뜨면 에녹의 집에 와서

"에녹아 내가 왔다. 나가자" 라고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그러면 에녹은 반갑게 나가 맞이하며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산으로 들로 나갔다가 해가 지면 하나님이 에녹을 집에 데려다가주곤 했습니다.

그것이 삼백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날씨가 너무나 좋은 날,

에녹과 하나님이 함께 가다가 너무 멀리 가서 해가 저도 돌아갈 수가 없게 되자 하나님이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고 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하용조